영가 위로 · 세계평화 기원 대규모 천도법회

'국제무차수륙천도대법회' 부산 영도서 봉행

진제대종사 등 1만여 대중참여
상좌부 스님들 평화 기원 찬팅
전국불교연합합창단 츰부다라니
희생 영가 위패를 국가별로 제작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진제선세계화회와 한국불교문화협회는 6월 12일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옆 아미르공원에서 '국제무차수륙천도대법회'를 봉행했다.

코로나19와 전쟁 희생자들의 영가를 위로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대규모 천도법회가 봉행됐다.

(사)대한불교조계종진제선세계화회와 (사)한국불교문화협회는 6월 12일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옆 아미르공원에서 '국제무차수륙천도대법회(이하 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천도법회에는 조계종 前 종정 진제 대종사와 총무원장 원행 스님, 팔공총림 동화사 회주 의현 대종사,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박형준 부산시장, 황보승희 국회의원, 김철훈 영도구청장 등 국내외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천도법회 1부는 부산영산재 무형문화재 스님들의 수륙대재로 진행됐다. 참석한 사부대중은 수륙대재가 진행되는 동안 함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평안을 얻기를 발원했다.

2부 기념법회에서는 동화사 회주 의현 대종사가 개회선언으로 시작을 알렸다. 공동집행위원장 호법 스님의 환영사와 공동집행위원장 능원 스님의 경과보고에 이어 스리랑카, 미얀마, 티베트 등 상좌부 스님들의 평화기원 찬팅이 진행됐다. 이후 전국에서 참여한 불교연합합창단 단원들이 희생 영가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츰부다라니 사경을 공양했다. 승가와 재가 내빈들은 헌화하며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으며 13개국 다문화 자녀들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극락월해운정사 신도회장의 발원문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봉행사, 내빈들의 추도사 등 인사말, 법문 순으로 행사는 진행됐으며 전국불교연합합창단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노래로 마무리됐다.

진제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전 세계 코로나로 희생된 모든 영가와 금일 천도대법회에 동참한 모든 영가여, 산승의 고준한 법문을 듣고 모든 고통을 여의고 부처님 국토 극락세계에서 편안한 진리의 낙을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준한 법문을 선사하오니, 잘 받아 가지소서"라며 영가의 안락을 기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국제무차수륙천도대법회를 통해 코로나19로 희생되신 모든 분을 위시하여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과 지구촌 오대양 육대주에서 아프게 희생되신 모든 고혼들이 아미타부처님의 자비하신 가피를 입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기도한다"며 "남아 있는 유족 모든 분들에게도 부처님의 자비하신 가피가 그들에게 임해서 하루 빨리 실의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일상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위로했다.

한편, 천도법회에는 코로나19로 사망한 1500만 영가들의 위패를 국가별로 특별 제작했다. 아울러 산불 재해와 전쟁, 산업재해, 범죄피해 등으로 목숨을 잃은 영가를 기리는 위패도 봉안했다. 법회 동참금은 영가 1위 당 1만 원이었으며 수익금 전액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 및 국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한편, 진제 대종사는 6월 16일 부산 시청을 방문해 성금 8억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국제무차수륙천도대법회를 준비하며 약속한 평화 기금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국내 산불피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회향할 예정이다.

조계종부산聯, 제5회 삼귀의계오계 수계식

7월 24일,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수계식 위해 보리암서 관정수 채수


조계종부산연합회가 7월 24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제5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수계의식 진행모습.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가 7월 24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제5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대규모로 진행될 삼귀의계오계 수계식은 초심 불자들에겐 법명을 받고 부처님의 제자로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가 되며 기존 불자에겐 신심을 증장하고 초심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열린다. 또 부산에 있는 조계종 사찰 소속 불자들이 연합해 참석하는 법석으로 대규모 화합의 장으로 회향한다.

수계식에는 매년 전국의 불자 20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이번 수계식에는 암 투병 중인 불자가 "죽기 전에 수계를 받고 싶다"며 참여할 예정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절에 다니는 것을 보고 수계의식에 참석하기로 하는 등 가족수계의식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이번 수계의식을 위해 3대 해수관음성지로 불리는 남해 보리암에서 관정수를 채수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질병과 전쟁 그리고 재난으로 많은 중생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수계의식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로 번뇌를 식히고 고통을 여의며 안락과 기쁨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계식은 조계종부산연합회 초대 회장인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전계대화상을 맡아 수계식을 증명한다. 갈마아사리는 조계종부산연합회 2대 회장이며 현재 조계종 고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진 스님, 교수아사리는 조계종 계단위원이며 조계종림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이 담당한다. 존증아사리는 조계종부산연합회 3대 회장 심산 스님, 조계종부산연합 회장 원허 스님, 수석부회장 목종 스님, 부회장 혜성 스님, 만초 스님, 하림 스님, 지일 스님이 맡는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수계는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참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잡이"라며 "삼귀의계오계 수계 법회를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참 희망자는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원사찰, 신도는 재적사찰에서, 일반 불자는 조계종부산연합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동참금은 1인 3만 원이며 법회 당일 흰색 상의와 법복 바지를 착용하고 참석하면 된다.

한편, 수계식에서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의 회장 연임 취임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새로운 포교 및 수행 방향을 위한 불교발전 비전 선포식도 진행된다. (051)501-7554.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24회 진여호국영령위령재 봉행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진여호국위령재가 열렸다.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6월 9일 부산 화명동 현충공원 내 호국영령추모비 앞에서 '제24회 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정각 스님(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이사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1부에서 동암 스님(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전수자)이 호국영령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위령제 의식을 진행했다. 2부 행사는 △헌시 △왕생극락 기원등 밝히기 △육법공양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왕생극락발원문 △상패 및 장학금전달 △추모사 △법문 등으로 이어졌으며 3부 작은 추모음악회도 이어졌다.

남보타월 원장은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 진행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많은 유가족 분들과 관계자 분을 모시고 여법하게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며 "지난 24년간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진여원은 박현정(구포초등학교) 외 11명의 보훈 유가족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제25회 혜원백일장' 시상식

대상 양희경(운문) · 박나은(산문) 수상



사회복지법인 혜원(대표이사 원허)이 6월 11일 부산 혜원정사 만불전에서 '제25회 혜원백일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 운문 부문은 양희경(마산삼진고), 산문부문은 박나은(마산삼진고) 학생이 수상했으며 부산시교육감상은 정영욱(복대중), 김윤주(삼성여자고) 학생을 비롯해 총 26명의 학생이 받았다.

사회복지법인 혜원은 매년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예창작과 재능 발전을 돕기 위해 백일장을 개최 해왔다. 이번 해는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달간 공모를 진행해 작품을 접수했으며 총 636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백일장은 운문 부문 '이기심', '평화', '아름다운 세상', 산문 부문 '말이 주는 상처', '바람향기', '자가 격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심사는 월간 '해인' 편집장인 성전스님이 심사위원장을 담당했으며 문태준 시인과 김연수, 변왕중 소설가가 심사위원으로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前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연관스님 입적

6월 17일 영결식, 세수 74세, 법랍 53세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봉암사 수좌로 수행 정진한 연관 스님<사진>이 6월 15일 조계총림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에서 세수 74세, 법랍 53세로 입적했다.

연관 스님은 수좌의 별로 불리며 후학들에게 모범을 보인 수행자로 알려져 있다. 관음사에서 원적하기 10일 전에 스스로 곡기를 끊었고 4일 전부터는 물조차 마시지 않으며 죽음의 순간을 고요하게 맞았다.

지구환경과 생명 살리기를 위해 도법스님과 환경운동에 앞장섰으며, 참선정진과 함께 다수의 불서를 번역했다.

빈소는 조계총림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6월 17일 오전 10시 30분 관음사에서 엄수된다. 다비식은 통도사 다비장에서 봉행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